

2007 광주·전남서 살아보니...

광기술원 입주 '휴엔텍'

# 나홀로 입주... 기반 닦기 고달팠다

올해 다기능 마우스 개발업체 '(주)휴엔텍' 직원들이 광주에서 보낸 1년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이 회사 구영욱 대표(39)는 대학 졸업 이후 대구 등 외지에서 IT교육지원업체에서 일하다가 최근 귀향한 케이스. 고향이라고는 하나 기업 환경이 생소하고, 사람들도 낯설었지만 "광(光)산업"을 집중 육성

'광산업 도시' 불구 연관 업종 없어 "맞춤형 광마우스로 세계시장 도전"

하겠다는 광주시와 한국광산업기술원의 말만 믿고 창업을 결정했다. 구 대표는 올해 초 광산구의 한

상가 건물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고 평소 구상하고 있던 '다기능 광(光)마우스' 개발에 승부를 걸었다. 광산업이 부품소재를 납품하는 하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작은 물건이라도 완제품 생산업체가 되겠다는 각오에서였다.

수 개월 동안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이 많은 마우스를 분해, 연구하면서 들인 비용만 1억여원. 작은 부품 하나를 얻기 위해 5만원짜리 마우스를 분해하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한국을 떠난 업체를 때문에 부품 하나를 찾느라 수도권 전자상가를 샅샅이 뒤져야 했다. 몇 백원하는 부품을 사기 위해 수십만 원의 출장비를 들이기를 반복했다. 광산업체가 집중돼 있다고는 하지만, 마우스 급형 관련 업체 외에 회로·광소자 등 관련 업종이 하나도 광주에 없었기 때문이다.

앞이 보이지 않던 사업에 빛이 들기 시작한 것은 올해 6월.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하는 2007년 지역산업신기술보육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국광기술원에 입주하면서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금 8천만원도 받았다. 창업 후에는 제조업과 관련된 분야와 세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남부대학에서 열려 3개월 동안 세세한 기업경쟁법을 배울 수 있었다.

행정적인 문제를 잘 몰라 어려움에 처할 때는 광기술원과 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의 도움이 주효했다. 광기술원 기술이전센터는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는 창업대전 참가를 추천하고, 기술적 한계에 부딪칠 때마다 관련 전문가를 소개해줬다.

마침내 '문서감별용' '게임용' 등 고객 맞춤형 마우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내년에는 '희망'만 클릭 하겠습니니다." 구 대표는 직원 5명과 함께 '작지만 강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파이팅'을 외쳤다.

/인원주기자 ahj@kwangju.co.kr



올해 6월 광주시 북구 한국광기술원에 입주한 (주)휴엔텍 구영욱 대표(왼쪽 세 번째)와 직원들이 '대박 2008년'을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원주기자 ahj@kwangju.co.kr

## 광주 초등학교에 '납치 괴담'

"지금까지 5~6명... 한 명은 살해됐다"

초등학생이 납치당한 뒤 살해됐다는 '납치 괴담(怪談)'이 광주지역 초등학교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다. 경찰의 탐문 수사 결과 '괴담'의 진원지는 광주 Y초등학교 4년 정모(11)양의 일기장. 정양은 지난 달 20일께 '검정 옷을 입은 남자가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며 함께 가자고 했지만, 따라가지 않았다'는 내용을 일기에 적었다. 일기를 읽은 탐임 교사는 정양을 불러 납치 미수범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교내방송을 통해 '학교길에 검정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와 검정모자를 착용한 낯선 사람을 주의하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납치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교내와 다른 학교로 퍼지면서, '괴담' 내용은 '지금까지 5명이 납치됐다' '납치된 아이들 중 1명은 살해됐다'고 까지 검증을 수 없이 커졌다. 괴담들에게 납치당할 뻔했다는 조모(10·S초등 3)양은 "학교길에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초등학교 가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납치범이야'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쳤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문구점 주인은 "'납치범이야'라고 소리를 질렀으면 왜 기억을 못 하겠느냐"며 "그런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광주 신축 아파트서 공포탄 탄피 등 발견

광주지역 한 신축 아파트에서 공포탄 탄피 등이 발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 H아파트 204동 앞 쓰레기 분리수거대에서 M-16 공포탄 탄피 10발과 45구경 권총 탄두 2발, 녹이 쓴 사제 도검 1개가 버려져 있는 것을

입주민 문모(여·4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문씨는 경찰에서 "화단 앞에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대에서 분리수거를 하던 중 무언가 반짝거리 자세히 봤더니 공포탄 등 수십 발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공포탄 탄피와 탄두 등은 쓰레기 분리수거대 내에 한데 모여 있었고, 탄피 일부와 사제 도검은 녹이 섞여 있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시간강사 체육대 비리 폭로 파문

교수 등 20명 고발

경기도 K대학교를 졸업한 30대 시간강사가 이 대학교 체육대학에 박사과정에서 합격 대가 금품 요구와 논문대필 의혹 등 '충체적인 비리'가 있다며 대학교수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K대 체육대학에서 지난해 말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한 A씨에 따르면 체

육대 H교수가 지난해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여)에게 논문대리작성을 해 주겠다고 300만원을 요구했고, 이 원생이 박사과정에 합격한 뒤 조교 등을 통해 250만원의 합격사비비를 요구했다. A씨는 또 H교수의 지시로 박사과정에 있는 한 대학원생이 전 여자프로농구 감독 P씨의 박사논문을 대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몰래 산타 500명 '선물 대작전'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정문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2007 사랑의 몰래 산타 대작전' 발대식. 광주청년나눔센터 등의 주최로 진행된 발대식에는 조선대학교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산타복장을 한 몰래 산타 500여 명은 이날 불우학생 등 500여 명에게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정문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2007 사랑의 몰래 산타 대작전' 발대식. 광주청년나눔센터 등의 주최로 진행된 발대식에는 조선대학교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산타복장을 한 몰래 산타 500여 명은 이날 불우학생 등 500여 명에게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타조가 60대 농민 공격

보성, 전치 8주 중상

우리를 뒤흔치거나 타조가 60대 노인을 공격해 중상을 입었다. 보성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께 보성군 화천면 화중리 인근 밭에서 무를 캐던 이모(여·60)씨가 달려드는 타조를 피하려다가 손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씨는 "일을 하고 있는데 타조가 달려들더니 발로 걷어차고 부리로 쪼 뚫 몸을 짓누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씨에게 달려든 타조는 마을 주민 박모(52)씨가 예방용으로 키우던 6년생 암·수 타조 중 수컷이다. 경찰은 이 타조가 출입문이 열려 있어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타조 6년생은 키 2.5m, 몸무게가 150kg에 달하는데 최고 시속 60~90km까지 달릴 수 있어 직접 부딪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게 동물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박씨는 "성질이 온순해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공격한 적 없는데 이씨가 놀래 수건을 흔든 것을 위협으로 느껴 달려든 것 같다"고 말했다. 타조는 지난 1997년부터 국내 수입이 허가됐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사육되거나 예방용으로 키우고 있는 타조는 300여 마리. 전국적으로는 4천 마리가 넘는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 나원침 (7391) 김중두



다들 물어봐 신원재 KCC  
DS건설(주) KCC건설, 전소도, 대림  
KCC광호, 시스템광호, 생산, 시공  
KCC광호, 시스템광호, 생산, 시공  
(주)본드나리 KCC건설, 대림, 대림  
실리콘, 방수제, 접착제, 타이프  
KCC광호, 시스템광호, 생산, 시공

영수증 속여 분유 45만원어치 '술책'



○광주 동부경찰은 23일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재사용하는 수법으로 같은 물품을 훔친 홍모(27·경기도 시흥시)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H대형할인점에서 45만원 상당의 분유 4상자를 샀고, 3시간 뒤 동일 상표 분유를 같은 양만큼 들고 나오면서 가지고 있던 영수증을 제시해 종업원들을 속였다는 것.

○홍씨는 전국 대형 할인점을 돌며 싸게 파는 물품을 대량 구매한 뒤 소매점에 되파는 일을 하는데 이날 할인 판매를 한 분유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홍씨는 3일 뒤 같은 할인점에 또 갔다가 얼굴을 알아 본 종업원에게 붙잡혔다"고 설명.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car sales, and other commercial notices.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prices for various properties and vehicles.